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춘하 남성 정장 소재의 선호도 분석

## Preference of S/S men's suit fabric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s

주정아\* · 유효선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Jeongah Ju · Hyoseon Ryu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judge's gender and age groups in preference of S/S men's suit fabric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and the texture by gender and age group. For this study, 60 types of S/S men's suit fabrics were used with variously-composed fibers, such as wool, wool-blended, and PET, thickness, and weight. To evaluate the texture and the preference subjectively, nine ranks' semantic differential scale questions of 22 texture adjectives and preference of 4 apparel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the factor analysis, texture adjectives we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stiffness," "elasticity," "bulkiness," "coolness," "smoothness," and "drapability." Depending on gender and age groups of judg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exture factors and the preference were observed. Especially, men under 30 years of age showed a higher grade of stiffness and a lower preference on pants than other grou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xture and the preference was different by gender and age group: Women evaluated a preference of men's suit fabrics in relation to stiffness and smoothness, whereas men did so in relation to stiffness, smoothness, coolness, and drapability. A young age group put more importance on drapability for preference of men's suit fabric.

**key words** : preference ,subjective hand, gender, age groups, men's suit fabric

### I. 서론

어패럴의 상품 가치는 실루엣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가 갖추고 있는 색상과 무늬, 표면감, 촉감 등의 '관능적인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의류 소재는 물리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에서 각기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로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한정되어 소재에 의해 어패럴의 디자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사라패션정보, 2000). 의류 소재에 있어서 촉감과 시각 및 미적 감각 등의 관능량과 드레이프성과 굽힘성 등의 물리량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천의 최종 성능을 말한다(박성혜, 유효선, 1999). 그러나 태를 결정

짓는 요인들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성능 이외에 주관적으로밖에 평가하지 못하는 관능량의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 주관적 평가에 의존해 왔다. Kawabata(1980) 등은 KES-F 시험기를 고안하여 여러 물성량들을 종합적으로 계측하여 소재 성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소재의 태를 측정하는 역학량을 KES-F로 측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나 주관적 감각 평가는 기후나, 풍도, 국민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어(Behery, 1986) 현재 국내의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류 제품에서 소비자의 선호도는 복합적인 요소를 갖는 종합적 감성으로 소재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김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eongah Ju.  
Tel: 02)880-8759  
E-mail: jajoo111@naver.com

경애 등(2001)은 셀룰라아제 처리를 한 데넵 소재를 대상으로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구성, 표면 특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제품 구매시의 소재의 영향을 연구한 정 인희(2002)의 연구에서는 소재가 의류제품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들과 상관성이 높은 다차원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소재의 주관적 재질감의 선호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우정 등(1997)은 직물에 대한 선호감이 단순한 1차원적 감각이 아닌 복합적 감각의 개념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였고 최종 선호도에는 태와 촉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인과관계 모형 분석 결과 촉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각을 통한 의복 재질의 감성과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급 감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추출되었다(오해순·이경희, 2002).

이와 같이 의류 소재를 평가하는 것은 감각 이미지를 시각 인지한 후에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특성과 연결되어 감성을 형성하고, 또한 이러한 질감 이미지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배현주, 김은애, 2003).

또한 동일한 소재의 주관적 평가의 경우, 소재의 특성 이외에 최종 용도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소재에 대한 감각과 선호도에 영향을 받는데 김경애 등(1996)은 양모와 폴리에스테르 혼방 직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 차이가 있고 남성의 응답이 중간에 몰려있고 편차가 작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넥타이용 견직물에 대한 감각과 감성을 평가한 김 춘정 등(199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이 밖에 평가자의 특성과 태 평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있었는데 김 경애(1999)는 알칼리 감량 가공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중량감이 더 크고, 표면특성은 더 거칠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여성복 춘추복지를 대상으로 한 홍 경희 등(1994)의 연구에서는 전문성에 따라 태 차원의 대부분이 차이가 없었으나 무게와 신축성의 차원은 다르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마직물의 대상으로 연령과 전문성에 따른 선호도를 연구한 박 성혜 등(1999)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차이보다는 전문성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소재에 대한 소비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평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일의 다양성이 여성용이나 캐주얼 의류에 비해 단순하여 다른 용도의 의류에 비해 선호도에 미치는 소재의 영향력이 큰 남성용 정장(배현주, 김은애, 2003)을 중심으로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소재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성용 정장 소재의 경우 착용자는 남성이지만 선택, 구매 및 평가를 결정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큰 상품이므로 상품 및 소재 기획시 여성의 감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성용 정장의 선호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연령대와 성별이 다른 각각의 집단이 어떻게 다른 주관적 태 평가 차원을 사용하는지 분석하여,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소재를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실험 직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시중에서 흔히 남성 정장용으로 시판되는 소재 60가지 직물로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성 섬유는 남성용 정장 소재의 특성 상 양모를 함유한 직물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7%였으며, 이 중 양모 100% 직물이 전체의 45%였으며 양모사의 경우 소모사가 대부분이었고, PET는 양모와 혼방 또는 단독으로 양모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직은 평직이 전체의 80%, 능직이 20%였으며 평직 중 이중직이 하나 포함되었다. 시료의 중량 평균은 181g/m, 두께 평균은 0.39mm, 밀도는 경사 방향이 5cm당 105개, 위사방향의 경우 134개였으며, 범위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중량 및 두께, 밀도는 시판되는 남성용 정장 소재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선별하였다. 시판되는 시료를 입

<표 1> 시료의 특성

섬유 혼용률		조직		중량(g/m <sup>2</sup> )			두께(mm)			밀도(개/5cm)					
조성 섬유	빈도	조직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경	위	경	위	경	위
Wool 100%	27	평직 (이중직)	48 (1)	181	26.4	127~ 244	0.39	0.097	0.275~ 0.63	105	134	54	39	93~ 290	38~ 220
Wool/PET혼방	12														
PET100%	8														
Wool/Silk혼방	5	능직	12												
Wool/기타혼방	8														

수하였기 때문에 시료의 색상과 무늬 등이 동일하게 통제되지 못하여 줄무늬 및 체크 등이 포함되었으나, 되도록 무채색의 단색 직물을 주로 사용하였다.

## 2. 주관적 평가

춘하 남성용 정장의 촉감에 의한 태 평가 용어를 수집하기 위해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강사,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등의 의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직물을 제시한 후 평가 방법에 따라 촉각을 사용하여 직물을 만져본 후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법은 '양손으로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겨본다, 표면을 손으로 쓸어본다, 손으로 눌러본다, 움켜쥐어 놓아본다' 등 촉각을 사용하여 직물을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직물의 크기는 35x35cm로 하였다.

위의 자유 기술식 설문 결과에 의하여 얻은 형용사를 분류하여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 중 응답 빈도가 높은 것을 1차로 추출하였다. 또한 정확한 태 평가 용어라고 볼 수 없는 '느낌이 없다, 좋다' 등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용어들은 다시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상관관계가 높으면서 같은 요인에 속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22개의 태 평가 형용사로 축약되었다.

선호도는 소재에 대한 종합적인 선호도 이외에, 의류 아이템을 한정하여 상하의가 동일한 소재로 된 슈트용, 상하의가 다른 콤비의 재킷, 그리고 바지용 소재의 4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각각의 태 평가 형용사와 선호도는 9점의 의미미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대상자는 남성복 정장 소재를 접하고 취급할 기회가 일반인보다 비교적 많아 주관적 태 및 선호도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은 의류학 대학원생 및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의류 판매업 및 유통업 등의 의류 관련 산업의 종사자 200명이었으며, 성별은 남녀 각각 100명, 연령은 20대가 110명, 30대 이상이 90명으로, 한 사람이 각각 6개의 시료를 만져보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 3. 통계 분석 방법

SPSS 10.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 평가 차원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요인의 수는 고유값 1 이상인 것으로 하였고, Varimax에 의한 직교 회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태 차원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호도와 주관적 태 차원의 평가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대가 다른 집단의 주관적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Duncan의 다중 비교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토의

### 1. 주관적 태 차원의 분석

주관적 평가를 통해 춘하 남성용 정장 소재의 주관적 태와 관련된 요인 및 평가척도를 밝히고자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표2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태 평가 차원은 크게 6가지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의 62.3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은 '딱딱하다', '뻣뻣하다' 등의 '강연감'으로 설명변량은 12.76%였고 요인 2는 늘어나는 성질과 관련 있는 '신축성있다', '늘어난다', '탄력있다'로 구성되어 '탄력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은 11.48%였다. 요인 3은 '기모가 느껴진다', '툭툭하다', '두껍다' 등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무게와 부피, 밀도 등과 관련된 특성으로 '부피감'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변량은 11.34%였다. 요인 4는 '시원하다', '사각거린다', '까슬까슬하다', '차갑다' 등 직물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온냉감과 요철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차원으로 여름용 옷감에서 주로 추출되는 특성으로 '청량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 변량은 10.79%였다. 요인 5는 '매끄럽다', '팡팡있다'의 '평활감'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변량은 9.0%이며, 요인 6은 '쳐진다', '드레이프성있다'로 구성되어 '드레이프감'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변량은 7.0%였다.

남성용 정장 직물 11종을 대상으로 감각 이미지 차원을 분석한 배현주 등의 연구(2003)에서는 평활감, 무게감, 밀도감, 강연감, 탄력감, 습윤감의 6개 요인이 추출되어, 표면 요철감이 평활감이 아닌 습윤감의 차원과 함께 추출되어 청량감으로 명명된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은 춘하용 소재의 특성으로 표면의 요철이 있는 소재는 건조하고 차가운 느낌과 유사한 감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배현주 등, 2003)와의 차이는 사용된 시료의 특성 차이와 함께, 대상으로 한 평가자가 선행연구에서는 20, 30대 여성만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포함하여 40대의 연령층을 포함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lt;표 2&gt; 주관적 태 평가 형용사의 요인 분석

요인명	태 형용사	요인점수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alpha$
강연감	딱딱하다	.87	2.80	12.76	12.76	0.7912
	뻣뻣하다	.79				
	거칠다	.65				
	부드럽다	-.63				
탄력감	신축성이 있다	.92	2.53	11.48	24.23	0.8243
	늘어난다	.90				
	탄력이 있다	.60				
부피감	기모가 느껴진다	.73	2.50	11.34	35.57	0.7556
	톡톡하다	.69				
	두껍다	.65				
	푹신하다	.61				
	무겁다	.52				
청량감	시원하다	.70	2.37	10.79	46.36	0.6338
	사각거린다	.67				
	까슬까슬하다	.56				
	차갑다	.55				
	건조하다	.54				
평활감	구김이 간다	.26	1.98	9.00	55.36	0.5400
	매끄럽다	.77				
드레이프감	광택이 있다	.72	1.54	7.02	62.38	0.5659
	치진다	.76				
	드레이프성이있다	.71				

## 2.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태 차원 평가

주관적 태 차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원배치 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여 각각의 주 효과 및 독립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표 3은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앞서 분석된 주관적 태 평가 요인들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요인 1인 강연감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강연감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따라서 성별과 연령대가 각각 다른 4개의 집단에 대한 Duncan의 다중 비교를 실시하여 표 4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강연감은 2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제시된 남성용 정장 소재들은 더 뻣뻣하고 거칠게 느끼고 있었으나, 30대 이후의 연령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탄력감의 주관적 태 평가 차원에서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그리고 20대가 30대 이상에 비해 더 탄력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청량감의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연령대에 따라 20대가 30대 이상인 평가자보다 더 시원하고 사각거리는 것으로 소재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인 부피감, 평활감, 드레이프감은 성별과 연령대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선호도

춘하 남성용 정장 소재의 선호도를 각각 종합적 선호도 및 상하의가 동일한 슈트감, 상의만을 사용하는 콤비 재킷, 바지의 네 가지 용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각각의 용도별로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선호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춘하 남성용 정장 소재에 대한 선호도는 의류의 아이템에 상관없이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슈트용을 제외한 선호도 항목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과 남성은 기존의 춘하 남성용 정장 소재의 선호도가 다른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어 선호도의 평가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경애, 1996. 김춘정 등, 1999).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이상이 20대보다 기존의 정장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적을수록 정장 소재에 대한 선호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지 용도의 소재 선호도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 20대와 30대 이상을 비교 평가할 수 없고 성별과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의

<표 3>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태 평가 차원

요인명	독립 변수	집단	태평가차원 요인점수	F
강연감	성별	여	-.120	17.10**
		남	.126	
	연령대	20대	.000	2.70
		30대 이상	-.000	
	성별 x 연령대			4.60*
탄력감	성별	여	-.109	18.74**
		남	.114	
	연령대	20대	.001	4.28*
		30대 이상	-.001	
	성별 x 연령대			1.39
부피감	성별	여	-.001	0.01
		남	.001	
	연령대	20대	-.000	0.001
		30대 이상	.000	
	성별 x 연령대			2.88
청량감	성별	여	.005	0.44
		남	-.006	
	연령대	20대	.007	4.95*
		30대 이상	-.009	
	성별 x 연령대			1.41
평활감	성별	여	-.004	1.87
		남	.004	
	연령대	20대	.002	1.33
		30대 이상	-.002	
	성별 x 연령대			3.05
드레이프감	성별	여	-.001	0.00
		남	.001	
	연령대	20대	-.001	0.16
		30대 이상	.001	
	성별 x 연령대			2.81

\* p < 0.05, \*\*p < 0.01

<표 4> .강연감에 대한 집단별 다중비교 (p<0.05)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여성	-.128 A	-.001 A
남성	.284 B	.036 A

미한다. 따라서 표 6은 독립변수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고 나타난 비지용도에 대한 선호도를 성별과 연령대가 다른 네 가지 집단에 대해 다중비교를 한 결과이다. 앞서 강연감에 대한 분석과 같이 20대의 남성 집단이 다른 세 개의 집단, 즉 여성과 30대 이상의 남성과는 다른 판단을 하여 선호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따라서 20대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대 이상에 비해 정장 소재의 차별화된 소재 기획이 요구되며, 이들 집단의 정장 소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선호도

용도	독립 변수	집단	선호도	F
종합	성별	여	4.53	12.03**
		남	4.33	
	연령대	20대	4.39	6.17*
		30대 이상	4.47	
	성별 x 연령대			0.01
슈트용	성별	여	4.42	6.95**
		남	4.23	
	연령대	20대	4.29	2.89
		30대 이상	4.35	
	성별 x 연령대			0.42
콤비재킷용	성별	여	4.24	10.13**
		남	4.01	
	연령대	20대	4.07	5.55*
		30대 이상	4.18	
	성별 x 연령대			3.50
바지용	성별	여	4.53	19.41**
		남	4.18	
	연령대	20대	4.32	6.71**
		30대 이상	4.40	
	성별 x 연령대			5.73*

<표 6> 비지용소재선호도에 대한 집단별 다중비교 (p<0.05)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여성	4.53 A	4.55 A
남성	3.85 B	4.35 A

4. 주관적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의 상관관계

1) 정장 용도에 따른 상관관계

표 7은 정장 용도에 따른 태차원과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 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관관계수의 값이 0.5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아 절대적 값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며, 태 차원의 질감 이미지 이외의 감성 이미지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 연구 결과(배현주 등, 2003)에 따라 향후 선호도에 대한 영향력 있는 평가자의 인지 차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감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춘하 남성 정장용 소재의 종합적인 선호도는 태 차원 중 강연감과 부적인 상관관, 평활감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피감과 드레이프감은 소재의 선호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

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지정하여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상하의가 동일한 소재로 구성된 슈트의 경우 강연감의 상관이 앞서 소재의 선호도만을 평가한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청량감의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며, 드레이프감도 선호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하의가 다른 소재로 구성되는 의류의 상의용인 콤비재킷과 하의인 바지에서 유사하였으나 콤비 재킷의 경우 비교적 강연감과 평활감의 영향이 다른 용도에 비해 낮고, 바지는 다른 용도와 달리 부피감도 영향력있는 태 차원으로 나타났다.

즉 소재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특정한 의류 아이템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소재 선호도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자들은 강연감을 주된 평가의 차원으로 사용하여 강연감이 낮을수록 선호하였다. 그러나 특정 아이템을 지정한 경우, 강연감의 상관은 낮아지고 나머지 다른 요인의 영향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상하의가 동일한 슈트의 경우, 청량감이 높고, 표면이 평활하고 강연감이 낮아 뽀뽀하지 않지만 반면 너무 처지거나 드레이프성이 낮은 소재를 선호하였다. 반면 상하의가 다른 바지의 경우에는 앞선 태 차원이외에 부피감도 크지 않은 소재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소재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선호도를 평가한 경우와 용도를 지정한 경우의 선호도와 관련 있는 태 차원이 다르게 분석되었는데 배현주 등(2003)의 연구에서 직물시료와 의복으로 제작한 시료를 제시할 경우 질감 이미지에 차이를 나타내어 시료 제시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재의 선호도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용도와 아이템을 자세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정장용도에 따른 주관적 태 차원과 선호도의 상관관계 (\*\*p<0.01)

	종합	슈트	콤비	바지
강연감	-.406**	-.272**	-.173**	-.231**
탄력감	.107**			
부피감				-.122**
청량감	.140**	.205**	.206**	.211**
평활감	.305**	.252**	.141**	.178**
드레이프감		-.100**	-.081**	-.090**

## 2) 성별에 따른 영향

선행연구 [김춘정 등,1999. 정인희,2002. 김경애 등, 2001. 김우정 등,1997. 오해순 등. 2002, 배현주 등 2003]에 따르면 태를 비롯한 시각적 질감 및 촉감 등은 소재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의 상관관계 분석은 대상으로 하는 소재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의 특성 파악에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독립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다른 평가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에 다른 집단의 태 차원과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집단에 따라 어떤 태 평가 차원을 중요시하여 선호도를 평가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8은 성별에 따른 태 차원과 선호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신뢰도 99%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계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 결과, 전체적인 남성 정장의 소재의 선호도는 태 평가차원 중 강연감과 부적인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춘하용 남성 정장 소재로는 뽀뽀하고 강한 느낌의 소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소재의 선호도에 미치는 태 평가차원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강연감과 평활감이 외에 청량감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식적인 느낌의 슈트용보다는 상하의가 다른 소재로 조합된 캐주얼한 느낌의 콤비나 바지에서 청량감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선호도에 드레이프감이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뽀뽀하지 않지만 너무 늘어지거나 드레이프성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이 주된 구매자이고 상하의가 다른 소재로 기획되는 캐주얼한 감성의 정장 의류인 경우 소재는 강연감이 높지 않아 뽀뽀하지 않고, 반면 표면이 까슬까슬하고 건조하면서 차가운 느낌의 청량감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은 소재의 선호도에 있어서 태 평가 차원의 관련성이 매우 단순하게 분석되었는데 전체적인 소재의 선호도를 포함하여 용도가 지정된 세 가지 경우 모두 강연감과 부적인 관계가 있고 평활감과 정적인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뽀뽀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광택이 있고 매끄러운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소재의 8가지 감성축에서 남성적인 감성과 거리가 있는 '엘레강스'의 감성 차원(권오경, 김희은, 나영주, 2000)과 가까운 감각으로서 여성들은 남성의 정장 소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의 감각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남성 정장 소재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태 평가 차원도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용 정장 소재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단순 구매자이고, 관심의 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남성보다 단순한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를 관련지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8> 성별에 따른 주관적 태 차원과 소재 선호도의 상관관계 (\*\*p<0.01)

용도	종합		슈트		콤비재킷		바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강연감	-.352**	-.449**	-.196**	-.334**	-.192**	-.144**	-.165**	-.272**
탄력감		.194**						
부피감				-.140**				-.185**
청량감		.208**		.294**		.343**		.305**
평활감	.368**	.247**	.283**	.227**	.137**	.153**	.239**	.126**
드레이프감				-.127**		-.114**	-.115**	-.128**

3) 연령대에 따른 영향

표 9는 20대와 30대 이상의 연령대에 따른 소재 선호도와 태 평가차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연령대에 따라 다소 다른 관련성을 보여준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강연감과 평활감은 선호도와 각각 부적, 정적인 관련이 있는 주된 태 평가 차원으로 나타났다으며, 20대의 경우는 이외에 드레이프성에 부적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경우 드레이프성은 선호도와 상관이 거의 없고, 청량감과 선호도의 상관이 2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대의 경우 더 높은 연령대에 비해 강연감이 높지 않아 뻣뻣하지 않고, 반면 드레이프성도 낮아 차지 않는 소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20대를 주된 구매의 대상으로 춘하 정장 소재를 개발할 경우, 의복의 외관상 실루엣의 측면을 중시하는 소재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30대 이상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춘하 정장 소재의 경우는 20대에 비해 표면이 건조하고 차가운 느낌의 청량감을 춘하 정장용 소재의 선호도와 관련지어 평가하므로 소재의 쾌적성을 중시하여 기획하는 등 주된 구매 대상자에 따른 차별된 소재의 기획이 필요하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춘하 남성용 정장 소재를 대상으로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소재의 주관적 태 평가

차원과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집단별로 선호도와 관련 있는 태 평가 차원을 분석하였다.

춘하 남성용 정장 소재의 주관적 태 평가차원은 '강연감', '탄력감', '부피감', '청량감', '평활감' 그리고 '드레이프감'의 6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설명 변량은 62.38%였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요인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강연감과 탄력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값으로 평가하였고, 연령대에 따라서 20대가 30대 이상의 평가자에 비해 탄력감과 청량감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강연감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Duncan의 다중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의 남성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강연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선호도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소재의 선호도 이외에 슈트용, 콤비 재킷용, 바지용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고, 바지용 선호도의 경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비교 분석한 결과, 20대의 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재의 주관적 태 평가 차원이 선호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성별과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선호도와 상관이 있는 태 평가차원이 2가지로 단순하여 강연감에 부적의 관계를, 평활감에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이외에 청량감과 드레이프감도 선호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표 9>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태 차원과 소재 선호도의 상관관계 (\*\*p<0.01)

용도	종합		슈트		콤비재킷		바지	
	20대	30대	20대	30대	20대	30대	20대	30대
강연감	-.402**	-.413**	-.270**	-.334**	-.241**		-.235**	-.226**
탄력감		.170**						
부피감								-.152**
청량감		.210**	.169**	.256**	.165**	.263**	.203**	.229**
평활감	.354**	.241**	.254**	.252**	.135**	.151**	.219**	.124**
드레이프감	-.109**		-.185**		-.142**		-.143**	

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30대의 경우 강연감과 평활감, 청량감이 선호도와 관련이 있었고, 20대는 이외에 드레이프감에 상관이 있게 나타나 연령이 낮고 남성인 경우 춘하정장용 소재를 선택하는데 드레이프감의 특성을 관련지어 인지하고 있었다.

즉 평가자의 성별과 연령대가 다른 집단은 각각 다른 주관적 태 평가 차원과 관련지어 선호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같은 용도의 의류 소재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의 특성과 함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차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선호도, 주관적 태, 성별, 연령대, 남성 정장 소재

## 참 고 문 헌

- 김경애, 이미식 (1996). 남성용 양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1), *한국섬유공학회지*, 33(7), 585-592.
- 김경애 (1999). 평가자의 연령과 전문성이 직물의 태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알칼리 감량가공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2), 220-229.
- 김경애, 이미식, 김정희 (2001). 셀룰라아제 처리된 데님 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 (2) - 면직물의 주관적 태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5(1), 115-123.
- 김우정, 이정순, 홍경희 (1997). 선호감의 구성 차원 모형과 관련 물성 변인 : 직물의 접촉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 김춘정, 나영주 (1999). 견직물의 태와 감성 차원의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연구 - 넥타이용 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6), 898-908.
- 권오경, 김희은, 나영주 (2000). 패션과 감성과학, 교문사, 서울.
- 라사라패션정보 (2000). *어패럴 소재기획(2nd)*. 라사라패션정보. 서울.
- 박성혜, 유효선 (1999). 마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 -주관적 평가척도 개발과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8), 1194-1205
- 배현주, 김은애 (2003). 남성 정장용 양모 직물의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11), 1318-1329.
- 오해순, 이경희 (2002). 의복 재질의 시각적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10), 1412-1423.
- 정인희 (2002).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소재 선호 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1), 83-94.
- 홍경희, 김재숙, 박춘순, 박길순, 이영선, 김재임 (1994). 여성용 춘추복지의 태에 관한 연구 (1)-태의 주관적 평가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3), 327~338
- S. Kawabata (1980). *The standardization and analysis of hand evaluation*, 2nd edition. The text. Mach. Soc. of Japan., Osaka.
- H. M. Behery (1986). Comparison of fabric hand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ext. Res. J.* 56 227-240.

(2004. 06. 09 접수; 2004. 08. 10 채택)